

포교 · 신행 소식

포교사 4000명 범어사서 전법이지 다진다

8월 31~9월 1일 범어사서 '8재계 수계실천대회'

전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지계(持戒)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 부산 범어사에서 '제11차 8재계 수계실천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8재계 수계실천대회는 포교사들이 지계를 점검하고 전법이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팔재계란 팔관재계(八關齋戒)의 준말로 재가 신도들이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받아 지니는 계율로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몸을 치장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계실천대회에서는 포교사 및 전

문포교사 · 국제포교사 · 상담심리사 품수식,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특강, 8재계 수계식,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및 5km구간 쫓불행진, 보살계 수계식 등이 진행된다.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사단 부설 '무소유실천운동본부'의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무소유실천운동본부는 청소년 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4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및 왕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8재계 수계실천대회는 재가자들 또한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포교사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산사워크숍 성료

8월 17~18일 성림사에서, 데이비드 브레이저 초청



워크숍에는 스님 17명 재가자 59명 등 총 76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가운데)와 10시간 동안 선 치료의 기본적인 이론 과정을 진행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8월 17~18일 마포 성림사에서 수행지도자이자 현대 불교심리학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 박사를

초청해 제14회 산사워크숍 '선 상담 치료'를 개최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스님 17명 재가자 59명 등 총 76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10시간 동안 선 치료의 기본적인 이론 과정을 진행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참가자들은 선 치료에 대한 상담 기법을 배우고 참가 사부대중 모두 불교상담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향후에도 불교심리학 분야의 명망 높은 강사와 교수들을 초빙하는 워크숍을 유지해 불교 상담을 연구하는 사부대중에게 폭넓은 수양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오형근 교수, 금강삼매경론 강의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승불교연구원서

유식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금강삼매경론 강의가 열린다.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현 대승불교연구원장)는 9월 7일 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총무로역 인근 대승불교연구원서 원효대사의 저서인 '금강삼매경론'을 강의한다. (02)2264-7120 **이나은 기자**

초보엄마 양육 스트레스 법회서 날리자

'아기엄마 수행법회' 열려 일요일 오후 3시 정토회관에서

아기를 키우는 초보 엄마들은 양육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아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수행 등 수행생활을 해보려 해도 아기를 집에 두고 법당에 간다거나, 아기를 데리고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업무가 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정토회 법당에서는 이런 아기엄마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육아고민을 나누는 이색 수행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 이름은 '아기엄마 수행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정토회관 2층 강당에 가면 자유롭게 예불을 보는 엄마와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6월 2일 첫 법회를 가진 '아기엄마 수행법회' 회원들은 8명의 엄마와 생후 9개월부터 44개월까지의 영·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엄마 수행법회'를 이끌고 있는 홍지원 씨(35세)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불교대학과 경전반 수업을 들었는데, 출산 후에는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회 자체가 성인을 중심으로



8명의 엄마와 생후 9개월부터 44개월까지의 영·유아들로 구성된 '아기엄마 수행법회' 회원들이 아기들을 옆에 두고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진행되고 아기가 법회에서 울기라도 하면 다른 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 참석할 업무가 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내 삶의 기준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육아 기간 동안 엄마의 마음이 자녀의 심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도반들과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법회에 모여 삼귀의례·반야심경 독송 후 법륜 스님의 동영상을 1시간 정도 시청한다. 법회 후에는 나누기 시간을 가져 한 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육아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거나 육아정보를 공유한다.

법회를 진행할 때 회원들은 간단한 규칙을 세웠다. 배고프거나 배변문제로 아기가 울 경우 제외하고 아기가 울어도 법회 중간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아기가 울어도 함께 법회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혜정(38세)씨는 "처음 법회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와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가 받아심경 독송, 삼귀의를 하면 기도하는 것인지 알고 흉내도 내고, 스님의 영상법문이 화면에 나오면 한참 쳐다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불교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들은 '아기엄마 수행법회'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화목을 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다. 남편과 함께 참석하는 엄마들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홍지원 씨는 "세 부부가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누기 시간에 평소 부부간 나누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봤다"며 "또 육아를 하면서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 죄책감을 느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 '나만 그렇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이어 "법륜 스님이 최소 3년은 아이에게 전념하라고 한 말씀을 새기면서 아이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매일 정진하고 아이의 요구에 잘 귀 기울이려 노력하니 정말 아이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씨는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내 마음이나 카르마를 체력·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알게 된다"며 "아기엄마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수행법회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02)587-8990 **이나은 기자**

문학과 음악 어우러진 콘서트 시즌2 'Start'

대불청 · 불교문화사업단, 8월 29일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20·30대 청년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열렸던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가 시즌2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템플스테이 음악여행'을 진행한다.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는 음악여행은 △ '공감' - 8월 29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 △ '좋은 벗' - 10월 17일 오후 4시 남인사마당 공연장 △ '가을 소풍' - 11월 28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 △ '힐링' - 12월 26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각각 열린다.

대불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열린 '쓰담쓰담 통통 콘서트'는 문학과 음악을 결집한 힐링콘서트라면 이번 음악여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회마다 관객을 초대해 함께 할 수 있

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에 열리는 공연은 조계사 인근 견지동에서 일하는 불자와 함께하는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콘서트 1부에서는 어른을 위한 동화 '오세암'을 음악극 형태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2부는 건물 옥상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하영태 대불청 연수원장은 "견지동에는 여러 불교 기관 단체가 모여 직·간접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서로 스치듯 얼굴을 마주치거나 행사나 사업을 통해 만남이 이뤄지지만 일과 관련된 딱딱한 자리에서 함께 했던 것 같다"며 "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7일 개최되는 공연은 내·외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타악그룹 '아단법석'의



대불청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획한 '통통콘서트' 2시즌이 시작된다. '템플스테이 음악여행'을 주제로 8월부터 매월 1회씩 열릴 예정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명나는 타악공연을 펼친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만해 스님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음악으로 만나보는 시간도 갖는다.

11월 28일에는 <꾸뻬씨의 행복여행>을 주제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북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26일에는 겨울풍경이 가득한 문학

과 음악을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불청은 "'음악여행'과 함께한다면 당신은 스마트폰의 불편한 기계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사찰에 앉아 새의 지저귀음을 듣고 있는 듯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 공연 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체공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애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뉜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검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환의 '산증일기'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